노동 밖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과제로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④ AI는 인간 노동의 종말을 가져 올 것인가

"누구도 일자리를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무대의 조명이 어두워지자, 스크린 한가운데에서 스크린 속 존재가 성큼성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왔다. 마치 자신감 넘치는 성인 남성이 걷는 듯한 모습에 관객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올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 무대에서 관객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존재는 새로운 전기차도, 초대형 디스플레이도 아니었다. 현대자동차의 프레젠테이션 화면 한가운데에 등장한 것은 인간처럼 걷고 뛰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였다.

아틀라스의 안정적이고 당당한 움직임은 단순히 기술 시연을 넘어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했다. 무거운 부품을 들어 옮기고 반복 작업을 수행하며 위험한 환경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은 "공장은 곧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선언에 가까웠다. 이 무대에서 현대자동차는 아틀라스를 포함한 로봇 기술을 향후 생산 설비와 물류, 안전 관리 영역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인간의 피로와 사고를 줄이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설명은 기술적으로도, 경영 전략으로도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장면이 남긴 여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CES가 끝난 뒤, 국내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현대자동차의 로봇 공장 투입 계획이 구체화되자, 노동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노조는 로봇 도입이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일자리를 축소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노사 합의 없는 로봇 도입 반대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 한쪽에서는 미래 산업의 상징으로 환호받던 아틀라스가, 다른 한쪽에서는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AI 로봇을 두고 누군가는 혁신을, 누군가는 불안을 본다. 기술은 중립적인 듯 보이지만, 그 기술이 투입되는 순간 인간의 삶과 존엄을 둘러싼 질문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자동화는 과연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가, 아니면 인간을 필요 없는 존재로 밀어내는가. 아틀라스가 CES 무대에서 힘차게 걸어 내려온 그 순간부터, 이 질문은 이미 우리 삶의 일터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실 이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2024년 프랑스 비바테크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우리 중 누구도 일자리를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선택이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는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결합이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인간 노동은 더 이상 경제 시스템의 필수 조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발언은 과장이 아니라, 그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기술 로드맵에 근거한 전망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앞서 CES에서 공개된 아틀라스를 비롯해 글로벌 빅테크와 제조 기업들은 앞다퉈 AI 휴머노이드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 로봇들은 더 이상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기계가 아니다. 시각 인식, 자연어 이해, 강화 학습을 결합한 최신 모델들은 인간의 작업환경을 스스로 학습하며 적응한다. 물건을 집고 옮기는 수준을 넘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수정한다. 이는 곧 인간 노동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여겨졌던 유연성과 현장 판단력마저 자동화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공장 로봇 투입 계획에 노조 반발도
> 인간 노동 대체 · 일자리 축소 위협
> 노동 중심 인간관의 종말 다가와
> 노동은 '관계' 확인하는 수행 방편
> AI 시대 인간의 참여 방식 질문해야



같은 AI 로봇을 두고 누군가는 혁신을, 누군가는 불안을 본다. 기술은 중립적인 듯 보이지만, 그 기술이 투입되는 순간 인간의 삶과 존엄을 둘러싼 질문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자동화는 과연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가, 아니면 인간을 필요 없는 존재로 밀어내는가. 아틀라스가 CES 무대에서 힘차게 걸어 내려온 그 순간부터, 이 질문은 이미 우리 삶의 일터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사진 출처=챗GPT 생성 이미지

일론 머스크는 이 지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AI 기본소득을 언급한다. "노동이 생존의 필수 조건인 시대는 끝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존엄을 잃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 이후의 사회 설계다.

그러나 이 낙관적 전망에는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다. 인간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것인가. 자동화로 인한 노동 감소는 흔히 실업률이나 소득 격차의 문제로만 다뤄진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의 위기는 인간 정체성의 균열이다. 근대 이후 인간은 '일하는 존재'로 자신을 규정해 왔다. 직업은 생계 수단이자 사회적 위치였고, 자기 가치를 설명하는 가장 간명한 언어였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은 곧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물음이었다. AI가 이 질문에 답할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답할 근거 하나를 잃게 된다.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한다 해도, 일하지 않는 인간이 자기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AI 자동화는 인간을 해방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을 쓸모의 기준에서 탈락한 존재로 전락시킬 위험도 함께 품고 있다.

AI 시대의 노동 논의에서 반복되는 키워드는 '효율'이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싸게. 그러나 효율은 결코 중립적인 가치가 아니다. 효율은 언제나 비교를 낳고 비교는 배제를 동반한다. 더 느린 사람, 더 실수하는 사람, 숙련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당나라의 백장 회해(百丈 懷海, 749~814) 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라는 백장청규(百丈淸規)를 통해 노동과 수행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 가르침은 흔히 근면 윤리의 표어처럼 오해되지만, 그 본래 맥락은 생산성의 강요가 아니라 삶의 책임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수행자의 태도를 가리킨다. 이 규범을 세운 인물인 백장 회해는 고령과 병환 속에서도 공동체 노동을 멈추지 않았고, 제자들이 일을 대신하려 하자 단식을 택했다는 일화로 전해진다.

그러나 백장이 말한 '작(作)'은 결코 현대적 의미의 노동 생산성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는 실천, 다시 말해 존재로서의 참여였다. 백장은 수행자가 밥을 먹는 행위조차 타인의 노동에만 의존한다면, 그 깨달음 역시 공허해진다고 보았다. 여기서 노동은 시장 가치나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연기적 세계 안에서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몸으로 확인하는 수행의 한 방편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인간이 계속 일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AI가 노동을 대신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세계에 참여할 것인가"라고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백장의 청규는 노동이 사라질 수는 있어도, 존재의 책임까지 사라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만약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해방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일 수 있다.

노동의 존엄은 '일자리 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소비자로만 전락시키지 않기 위한 인간으로서의 품격이다.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는 말은 오늘날 이렇게 다시 읽힐 수 있다. "세상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단절된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비록 비효율적일지라도 세계와 관계 맺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AI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대신할 것이다. 이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무엇을 허락할 것인가. 더 많은 여가를, 더 깊은 관계를, 더 긴 사유의 시간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쓸모를 잃은 존재로서 자기혐오 속에 머물게 할 것인가.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노동 중심 인간관의 종말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AI 시대의 진정한 윤리적 과제는 일자리를 지키는 데만 있지 않다. 인간이 일하지 않아도 존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승인하는 데 있다. 붓다가 가르친 해탈은 단순히 무위(無爲)가 아니라, 잘못된 기준에서 벗어나는 자유였다. AI 시대의 노동 윤리 역시 그 자유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돼야 한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